

김지현 종료 7초 남기고 극적 동점골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무패행진 계속

서울시청과 혈투 끝 25-25 무승부
9승 2무로 리그 단독 1위 지킴
11골 강경민 통산 800골 돌파
부상 원선필·서아루 시즌 아웃 악재

광주도시공사가 경기 종료 직전 동점골로 극적인 무승부를 일궈냈다.

오세일 감독이 이끄는 광주도시공사는 19일 부산기장체육관에서 열린 2022-2023 SK핸드볼 코리아리그 여자부 2라운드 서울시청과 경기에서 25-25(14-9, 11-16) 무승부를 기록했다.

광주도시공사는 9승 2무(승점 20)로 리그 단독 1위를 지켰다. 리그 2위 삼척시청이 승점 17점으로 바짝 뒤를 쫓고 있다.

이날 11골을 터트린 강경민은 800골(역대 5호)을 돌파했다. 김지현(7골)도 득점을 보였으나 김지혜·정현희(2골) 등 나머지 선수들이 득점에 가세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주전 원선필(피봇)과 서아루(레프트 윙)가 부상으로 결장한 광주도시공사는 예상대로 고전했다.

김지혜와 김금순을 대체자원으로 투입했으나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전체 25득점 가운데 원 선수로 뽑아낸 득점은 1점이었다.

광주도시 공사는 전반을 14-9로 마쳤으나 후반에 의외로 고전했다.

23분까지 23-21로 리드했으나 서울시청 최한솔에게 6m골을 내주고 1점차까지 추격당했다. 이어 서울시청 조수연에게 또다시 골을 허용해 23-23 동점 상황을 맞았다.

위기상황에서 강경민은 9m 골을 터트려 24-23, 다시 한점차로 스코어를 벌렸다. 서울시청의 추적이 거셌다. 윤예진의 골로 다시 동점을 만들었다.

광주도시공사는 후반 28분께 강경민이 던진 9m 슛이 골 포스트를 맞고 나오는 불운에다 서울시청 조수연에게 골을 내줘 24-25로 역전당했다.

패색이 짙던 광주도시공사는 후반 29분53초에 김지현이 극적인 골을 터트려 25-25 무승부를 일궈냈다.

올시즌 우승을 노리는 광주도시공사는 비상이 걸린 상태다. 원선필과 서아루가 부상으로 올시즌



광주도시공사 강경민(가운데)이 19일 부산기장체육관에서 열린 2022-2023 SK핸드볼 코리아리그 서울시청 경기에서 수비망을 뚫고 슛하고 있다. <대한핸드볼협회 제공>

더 이상 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원선필은 지난 12일 SK슈글즈와의 경기 도중 왼쪽 무릎을 크게 다쳐 22일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서아루도 지난 10일 대구시청전에서 전반 초반 수비하는 과정에서 무릎 부상을 당해 20일 수술을 받는다.

오세일 광주도시공사 감독은 "주축 선수들의 부상으로 전력이 약화한데다 선수들의 체력 부담이 가중돼 어려운 승부를 했다"며 "주전들의 공백을 성공적으로 메우고 선수들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여자복싱 화순 박초롱·임애지 '항저우행 티켓'

아시안게임 출전권 획득

한국 여자복싱 중량급 간판 선수인(성남시청)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출전권을 획득했다.

선수진은 18일 충남 청양군민체육관에서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복싱 2차 선발대회에서 여자 66kg급에 단독 출전해 우승을 확정했다.

앞서 1차 선발전에서 우승했던 선수진은 이번 대회는 체급 경쟁자들이 여자 75kg급으로 체급을 바꾼 덕분에 경기를 치르지 않고 아시안게임 티켓을 거머쥐었다.

선수진은 지난해 열린 예정이던 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로 선발되고도 대회가 연기돼 다시 선발전에 나섰다. /연립뉴스

이 밖에 여자 50kg급 박초롱(화순군체육회), 54kg급 임애지(화순군청), 57kg급 진혜정(충주시청), 60kg급 오연지(울산시청)가 아시안게임 출전권을 확정했다.

남자 복싱에서는 51kg급 조세형(보령시청)과 63.5kg급 이종승(서울시청)까지 두 명만 1·2차 대회 연속 우승으로 항저우행 티켓을 따냈다.

이번에 출전자가 확정되지 못한 체급은 3월 11일과 12일 경남 김해시 문화체육관에서 최종 선발전을 치른다. /연립뉴스

명경식 여수체육회장, 전남 시·군체육회장단협의회회장 선출

명경식(사진) 여수시체육회장이 전남도 시·군체육회장단협의회회장에 만장일치로 추대 선출됐다.

전남도는 지난 16일 전남도체육회에서 열린 전남시·군체육회장협의회에서 명 회장이 회원 전원 만장일치로 협의회장에 추대됐다고 19일 밝혔다.

명 회장은 민선 1·2기 여수시체육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태권도 선수로 활동한 그는 새마을운동

동 여수시 지회장을 7년간 역임했고, 현재 케이엠티 대표이사도 활동하고 있다.

전남 시·군체육회장단협의회회장은 22개 시·군 체육회장을 대표하며, 지역 체육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

명 협의회장은 이날 취임 이후 첫 일정으로 '2023년도 전남도체육회 정기대의원 총회'에 참석해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그는 "민선 2기 전남체육발전의 출발점이라는 중차대한 시기에 협의회장을 맡게 돼 더욱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한체육회 등 다양한 기관들과 소통하며 전남 체육 발전과 풀어야 할 공동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희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페퍼스 '30대 외국인 감독'

NCAA서 14년 지도경력 쌓은 한국계 미국인 아헨 김 선임

광주 AI페퍼스가 사령탑으로 30대 외국인 감독을 선임했다.

페퍼스 배구단(구단주 장매튜)은 "신임 감독으로 아헨 김(Ahen Kim·37)을 선임했다"고 최근 밝혔다.

아헨 김 감독은 23-24시즌부터 감독을 맡게 되며, 3월 초 입국해 팀에 합류할 계획이다.

이경수 감독대행은 남은 22-23 시즌까지 팀을 이끈다. 23-24 시즌부터는 수석 코치로 복귀한다.

김동인 AI페퍼스 단장은 "아헨 김 감독은 전미대학체육협회(NCAA)에서 14년 이상 지도경력을 쌓아왔으며, 팀을 리그 상위권으로 도약시킨 경험이 있는 지도자"라며 "젊은 선수들로 구성된 AI 페퍼스에 힘과 활력을 더해 팀을 이끌고 성장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계 미국인인 아헨 김 감독은 2018년부터 NCAA 디비전1 소속 아이비 리그 브라운대학교(Brown University) 배구팀 감독을 맡았다. NCAA는 미국 대학스포츠를 관리하며 1000개 이상 대학이 소속돼 프로선수 등용문으로 불린다.

그는 선수 육성 등에서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임 3년만인 2021년 팀을 아이비 리그 1위에 올려놓으며 브라운 대학교 역사상 최초 NCAA 토너먼트 진출을 일궈냈다.

아헨 김 감독은 2021년 13승 1패를 거두며 '아이비리그 올해의 감독'으로 선정됐다. 그의 지도를 받았던 선수 5명이 같은 해 '최고 수비수상', '최고 신인상' 등을 수상했다. 재임 기간 아이비 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브라운 대학 선수 5명이 동시에 '아이비 리그 퍼스트팀'에 선정되기도 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아헨 김 광주 AI페퍼스 신임 감독. <AI페퍼스 제공>

미국 필라델피아 출신으로 고교와 대학 시절 각각 아웃사이드 히터, 리베로로 활동한 아헨 김 감독은 2008년 지역대학 프로그램 캠프 코치를 시작으로 지도자 경력을 쌓았다. 2009년부터 미국 가톨릭대, 조지워싱턴대, 휴스턴침례대 등에서도 지도자를 맡았다.

2013년에는 아메리칸대학교(American University) 배구팀의 코치직을 수행, 2017년까지 디비전1 소속 패트리엇 리그(Patriot League) 우승과 NCAA 토너먼트 5년 연속 진출, NCAA 16강 진출을 일궈냈다.

아헨 김 감독은 "AI 페퍼스 감독으로 합류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고 기대가 크다"며 "AI 페퍼스가 최고 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페퍼스 '값진 4승'

리드 32점·이한비 21점 활약...도로공사 3-2 꺾고 창단 최다승



AI 페퍼스 니아 리드가 18일 김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2-2023 V리그 한국도로공사전에 서 스파이크하고 있다. <KOVO 제공>

광주 AI페퍼스가 창단 최다승을 4로 늘렸다. 페퍼스는 18일 김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2-2023 V리그 원정경기에서 한국도로공사에 세트 스코어 3-2(23-25, 25-15, 18-25, 25-17, 15-12)로 이겼다.

페퍼스는 지난 시즌 창단 후 3승에 그쳤으나 올 시즌 4승(25패, 승점 11)을 거뒀다.

리그 최하위 페퍼스는 유독 도로공사에 강한 면모를 보였다. 올시즌 4승 가운데 2승을 도로공사를 상대로 쟁겼다.

주포 니아 리드가 양팀 최다인 32득점(블로킹 8개)으로 활약했다. 이한비(21점), 최가은

(10점)도 팀 승리에 힘을 보탤었다. 오지영은 리시브 성공률 57.69%를 찍었고 리그 32개를 성공시키며 후방을 지켜냈다. 승부처는 5세트.

페퍼스는 6-6에서 니아 리드의 백어택과 이한비의 오픈 등을 묶어 5점 연속으로 뽑아내며 12-6까지 점수를 벌렸다.

하지만 14-12까지 추격을 당한 페퍼스는 리드의 오픈 공격으로 승부를 마무리지었다.

리드는 5세트에서만 8점을 뽑아내는 등 모처럼 승부처에서 역할을 해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3

2023년 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3-02-01(수) ~ 2023-02-26(일)
매주 수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광주시립극단 특별공연 국립광주박물관과 함께하는 판소리감상회
일시 : 2023-02-26(일), 2023-03-26(일) 15:00
장소 : 국립광주박물관 대강당
문의 : 062-526-0363